

## 생산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관리업무 振興會로 이관 — 韓電과 협약서 정식 체결 —

**重** 電機器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 기술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된 生産技術發展 5個年 計劃에 의거 지난 1991년부터 重電機器업체에 지원된 R & D 자금중 상환되는 기술료 500億원이 電機振興會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管理業務를 振興會에서 수행하게 된다.

振興會와 韓國電力公社는 최근 생산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통해 “생산기술개발사업 운용 및 관리기준”의 내용을 일부 개정, 소관업무를 振興會로 이관토록 결정하고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관리·운영과 관련한 협약서를 정식 체결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후의 관

리업무를 진흥회가 수행하게 되며 업체의 기술료 상환 또한 진흥회로 납부토록 함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잠식없이 회전기금화하여 중전기기업계의 기술개발 기금으로 운영하게 된다.

생산기술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원된 실적을 보면 총 188개 과제에 참여업체는 172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약 1,000억원의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흥회에서는 앞으로 조성될 기술개발 기금의 투자효율 극대화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요령”을 제정하고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기금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中國 重電機器 輸出促進團 4천만 \$ 수출상담 — 업무협약도 체결 —

**韓** 國電機工業振興會가 韓國電力公社 후원하에 파견한 中國 중전기 수출촉진단이 지난

6月 25일부터 7月 5일까지 홍콩, 광주, 상해, 대련, 북경 등 5개 지역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 상담

액 4천만 \$, 상담회사 및 상담건 수만도 66개사, 446건에 이르는 상담 성과를 올리고 돌아왔다.

이번 수출촉진단은 진흥회 任寅柱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LG產電(株) 등 8개사에서 총 14명이 파견됐는데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력의 절대 부족으로 발전 설비와 이에 따른 송배전 설비를 확충하고 있어 대규모 중전기기 수요가 전망되는 시점에서 파견됐다는 점에서 바이어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또한 상담도 내실있게 진행돼 기대이상의 상담성과를 올렸는데 아직 중전기기 분야의 경우 미개척지인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전기기 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한 현장 확인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중국 방문기간 동안에는 수출상담 이외에도 중국전력공업부 및 華東電力集團公司 등 전기공업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중장기 전원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전력기자재 수급 현황 및 구매계획을 파악한 것을 비롯 향후 기술제휴 및 합작 투자 등을 통한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올렸다.

특히, 중국 기계공업부 산하 機電分會를 방문하여 정보자료 교환과 중전업계 인적교류 및 기술협력 등에 상호 공동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업계의 중국시장 진출 및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이번 시장개척 활동을 계기로 우리 업계의 국제화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수출 유망지역에 대한 수출촉진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 규소강관 수입관세 4%로 인하

—년간 300만 \$의 세금 경감 효과—

그 동안 진흥회가 업계와의 협의의 과정을 통해 정부에 건의한 규소강관 수입관세가 7월 1일부터 4%로 인하됐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국제적인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규소강관의 수입관세가 현행 8%에서 4%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중전기기 업계의 규소강관 공급이 원활해지고 관세인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도 연간 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변압기 등 중전기기의 기초 원자재인 규소강관의 올해 국내 총 소요량은 27만3천톤이나 포항제철의 용광로 정기보수 및 일본고베 지진으로 인한 신일본제철소의 생산물량 조달차질 등에 따라 8만2천톤 정도의 부족물량이 발생했으며 외국 제품 수입시 국산제품에 비해 15~23% 정도 비싸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중전업계의 수입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규소강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포철의 내수공급 확대와 함께 관세율을 인하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중전기기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 관세율을 8%에서 4%로 획기적으로 인하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관세율을 보면 대만의 경우 2.5~8%, 일본 8%, 미국 5.8%, EU 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WTO 양허세율은 18%로 되어 있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중전업계의 규소강관 부족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반기중 러시아 등에 규소강관 구매사절단을 파견, 공동구매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동남아시아 電機工業 동향 조사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전원개발 계획에 따라 重電機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

남아 지역의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의 電機

工業 시장동향에 대한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동남아 각국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키 위한 전원개발 확충 계획을 수립, 이와 관련된 전력기자재 등 전력설비 수출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국내 重電機器 수출도 매년 3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국내 중전업계의 관심이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고조되고 있어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重電業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시장 개척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료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 실시케 된 것이다.

振興會에서는 태국·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의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변환장치, 개폐기, 차단기, 배전제어장치, 전선 등. 주요 重電機器의 수요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및 전기관련 국영기업과 단체, 바이어 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단행본의 “동남아 전기공업 동향 및 진출방안” 자료를 발간, 회원사 및 관련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振興會에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하여 오는 10월말경 필리핀·스리랑카·인도·인도네시아 등에 전기공업 수출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개최, 관련기관 및 구매기관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진흥회는 1994년 “서남아 전기공업시장 동향”을 조사

발간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중국, 대만,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전기공업시장 동향” 조사 사업도 실시하는 등 중전업계의 해

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파견

— 중부, 관서, 동경전력 등 방문 상담 —

日本의 각 電機업체와 電力會社들은 엔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 부터의 자재조달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대규모 자재조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나고야 중부전력은 우리나라 전력기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지난 4월 국내 전기업체를 방문, 국내 제품의 경제성과 우수성을 인정하고 구매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국공관을 통하여 對日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韓國電機工業振興會에서는 국내 전력기자재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對日本 수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7일간) 나고야 중부전력, 오사카 관서전력, 동경의 동경전력 등 일본의 주요 3대 전력회사에 민·관 합동의 수출촉진단을 구성, 파견한다.

진흥회 李喜鍾 회장을 단장으로 현대중공업(주) 등 주요 중전기 업체 22개사와 통상산업부, 외

무부등 정부 관계관 및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등 총 42명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은 현지 전력회사 구매부서와 직접 구매 상담회를 갖게 되며 자재조달 방법 및 구매절차 등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방문기관중에는 구매상담을 갖는 외에도 발전설비 및 변전소 등을 시찰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높은 벽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대일지역 수출시장 진출의 교부보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振興會는 이번 방문을 통해 日本 전력회사에 우리 重電機器 제품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일본 타 전력회사 및 전기업체에도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일본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향후 국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